요 약 문

Ⅰ. 연구개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79년 에는 기후변화 문제가 유엔 기본협약을 통해 논의되면서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 변화는 현대 사회에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특히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에 초점이 맞춰 지면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이 인류의 관심이 되었다. 선진국들은 폐기물 재활용의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해 각종 선진 제도들을 시행했다. 이 중에서 생산자에게 소비이후의 폐기처리에 대한 책임을 주어 자원재활용을 촉진 시켜려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역시 2003년도에 EPR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생산자가 주도적으로 감량 및 재활용 등의 노력으로 인한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미 이행 시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그 개념을 폐기물 예치금 제도(DRS)와의 연계와 더불어 다시 한번 고찰하고, 나아가 시행 이후의 성과 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EPR제도는 그 이득면과 기여 면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 품목이나 수행 주체별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수행 주체들의 실현 방향을 제시하며 함께 고민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44조)에 의거하여 목표 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재이용하는 자원 순환형 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현재 시행중인 EPR제도는 그 외견적 성과가 상당하다고 일부 공감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시행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른 재활용 정책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있는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에 현행 예치금 대상 품목(가전제품, 형광등, 타이어, 윤활유, 금속캔, 유리병, PET병 등 7개 품목 15종)위주로 시행하였으나, 플라스틱, 요구르트용기와 우유용기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EPR제도의 근원적인 목표는 처음부터 재활용이 쉬운 친환경 재질과 디자인을 가진 물건을 생산하여 폐기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EPR제도의 시행 후 회수 및 처리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생산자의 비용효율성이 높아지고 부가적인 사회적 효과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도시행의 성과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효과적인 EPR수행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심도 있게 모색되어야 하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보완해 나가고 긍정적인 부분은 확대, 발전시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운영이 자리매김 하

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EPR제도를 개선 발전 시켜야 할 부문이 있다고 여겨, EPR제도의 품목관리의 실태를 중점으로 실적 저조 품목 대책을 수립해여야하며,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개선된 EPR로 정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EPR제도의 현황과 문제의 인식을 위해 부산시의 몇 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재활용을 위한 조사대상 물질 및 종류를 산정하기 위해 분리수거장을 검토하였다. 또한 선정된 품목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부산시의 폐기물 분류, 수집, 운반체계 시스템을 알아보았고, 선정된 대상물질의 수거체계 개선 방안과 품목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세대수가 많은 부산시의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현장조사를 하였고, 분리수거 시스템과 폐기물의 양을 파악하였고, 주민을 대상으로한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앞으로의 EPR제도의 품목 확대방안과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와 시스템 도입을 위한 방안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Ⅳ. 연구결과

부산 관 내 구별로 실시한 아파트 현장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EPR제도 품목을 인식하지 않은 상태로 생활계 폐기물의 분리수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의 재활용의 흐름도를 파악하지않고 그 순환이 현저히 자주 이루어 질 경우 많은 자원 손실을 볼 수 있다.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분리수거를 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EPR제도 품목을 인지하고 실행하는 아파트는 현저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는 당연히 생활계 폐기물의 양이 많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나 세대 수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적게 나오는 아파트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EPR 품목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고 그에 따른 분리수거의 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캔, 깡통류의 경우 전혀 재질이 다른 알루미늄 품목으로 다르게 분리해야 하지만, 분리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한곳에 배출되어 있는 현실이 다수 발견 되었다. 알루미늄 부분을 따로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되지 않고 한 곳에 분리수거 되었고 파지의 경우 박스, 신문지, 계란판 재활용율의 감소를 불러일으켰으며 그에 적합한 수거장이 따로 설치되어있지 않아 한 곳에 모두 수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과 품목에 대한 무관심이 국외의 분리수거와 비교해볼 경우 현저히 낮은 인식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산 관 내 각 구별로 실시한 아파트 생활계 폐기물 분리수거를 한달을 평균 일년 집계량을 보면 세대수에 따라 폐기물 양과 처리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세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세대보다 특정 품목의 양이 적은 결과가 있는 것을 볼 수있는데, 그 이유는 분리수거의 품목의 항목이 다른곳과 차별성이 있거나 항목이 많은 지역이 분포되어있는 점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과 캔, 깡통류같은 경우 철저히 따로 분리수거 되는게 맞으나 대부분 사람들은 인식하

지 않고 일제히 한곳에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의 인식은 비슷하지만 전혀다른 품목을 한곳에 분리수거 하는것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Ⅴ. 연구활용방안

DRS나 EPR 제도의 목적은 재활용 율을 높여 자원의 절약은 물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EPR 제도운영의 실적을 보면, DRS의 재활용 실적보다 EPR 제도하에서의 재활용 실적이 상당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EPR 제도 시행 이후 재활용 의무 이행 실적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EPR제도 시행을 계기로 소비자의 품목별 분리수거 의식의 함양과 지자체의 협조체계 개선, 재활용 시설 확충 등의 국내요인이 뒷받침 되었고, 또한 국제적인 유가 급등, 원자재 파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체계가 더욱 활성화 되어 재활용 실적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 7년간 포장재 제품 8,797천톤 재활용에 따른 매립(소각) 비용 대체 절감 및 재활용품 경제가치 창출로 3조 6,089억원의 총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였고, EPR대상 품목의 8,797천톤 재활용에 따른 매립(소각)비용 18,478억원 대체 절감과 재활용품 경제가치 17,611억원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본 장에서는 생략했지만 이는 6,275명의 고용 창출의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한국 환경공단에서는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율을 높이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곧 온실가스의 감축이라는 국가적 명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며, EPR 제도의 시행 이후 연 평균 427톤 CO_2을 감축하였다는 것은 상당한 기여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